

전주서일초 송대겸, 수영 꿈나무대회 금메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송대겸 학생 선수(전주서일초 6년)가 제3회 김천 전국수영대회에서 자유형 50m와 100m에서 각각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송대겸 선수는 남초부 자유형 50m와 자유형 100m 예선과 결선에서 대회 신기록을 4차례 수립하는 등 역대 초등부 최고 선수로 기록됐다.



특히 송대겸 선수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희망찬코리아 소속으로, 전주교육지침의 지원을 받아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희망찬코리아는 3년차에 접어드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지난 2월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수구 국가대표선수를 3명 배출하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레슬링부, 전국대회 두각 단체 3위 입상

전주대학교 레슬링부는 지난 13~15일 3일 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1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개인 첫 1위를 포함한 메달을 대거 휩쓸며 단체 3위에 입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건형(운동처방학과 4년)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87kg급에 출전해 매 경기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했고, 그레코로만형 97kg 윤동현(운동처방학과 2년) 학생 선수도 정상에 올랐다. 또 그레코로만형 손태영(운동처방학과 2년) 학생 선수는 2위를, 윤유민(운동처방학과 4년)·정유규(운동처방학과 4년)·소원(운동처방학과 3년)·오민서(운동처방학과 2년) 학생 선수는 각각 3위에 입상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덕과면, 약방사업 추진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청년 1인가구에 구급약품이 구비된 응급키트세트 전달하며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 사업은 면 시책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0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안동준 덕과면장은 "응급키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분 한분을 살피고 따뜻한 덕과면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환경청, 제9기 환경사랑 초록기자단 모집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제9기 환경사랑 초록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5명이며 이 중 청소년(초·중·고등학생) 10명, 성인(카드뉴스, 영상 제작 가능자) 5명으로 모집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로 전북 거주자에 한해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초록기자단은 탄소중립과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연보전 행사, 친환경 생활 실천 캠페인 등 환경전반에 대한 기사를 시기(청소년) 또는 카드뉴스·영상(성인)으로 제작하게 된다. 초록기자단에 선발되면 전북지역 내 각종 환경행사·캠페인 등에 참여해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작성된 환경기사는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과 관내 유관기관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소개되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연말 환경부장관상을 수여받는다. 초록기자단 지원신청은 전북환경청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결과와 오는 4월 10일 전북환경청 누리집과 공식블로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글로벌 사회공헌에 앞장서”

건협·굿네이버스 국제협력단, 탄자니아 코메셋 아동 건강증진사업 약정 체결

한국건강관리협회, 굿네이버스, 한국국제협력단은 최근 탄자니아 코메셋 보건환경개선을 통한 아동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약정에 체결했다. 아동 건강증진사업은 2025년(3년간)까지 진행되며 건협과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공동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사회협력 지속사업 공모에 제안해 선정된 것이다. 사업대상지역인 탄자니아 코메셋 지역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협과 굿네이버스가 1차 사업을 통해 주혈충증 유병률을 39.1%에서 19.7%까지 감소시켰으며, 학교급식 및 식수위생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검역 예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아동 영양개선 및 환경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이다. 건협과 굿네이버스는 탄자니아 보건부, 현지 지역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코메셋 내 13개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대상 아동 영양개선, 식수위생시

설 구축, 주혈충증 및 토양매개성 기생충 유병률 조사, 구충약품 투약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지난 3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건협은 굿네이버스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본 지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글로벌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나뎌리조트, 협약 체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앞으로 나뎌 호텔과 리조트의 숙박 및 각종 편의시설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지부장 박길춘)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뎌호텔 컨벤션홀에서 나뎌 호텔 & 리조트 서동태 대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 박길춘 지부장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내 숙박 관광시설 등 할인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부와 나뎌리조트는 협약체결이후 할인혜택으로 조합원이 이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나뎌리조트 숙박시설과 서빙시설,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에서 최고 75%~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나뎌리조트 서동태 대표는 “무주군 조합원들이 나뎌리조트에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객실



및 편의시설을 친절하게 단장했다”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 박길춘 지부장은 “전국 최고 힐링코스인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나뎌리조트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없이 휴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농협, 농축협 여신·채권관리 실무교육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도내 지역농축협 여신 및 채권관리 담당자 130여 명과 함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채권관리 실무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채권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농축협 여신 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을 담고있다. 여기에 실무이론과 단계별 권리행사, 상황별 우수추진 사례, 법원 관례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진행됐다. 특히 특별강사로 이천교 법무사 어두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업무 노하우를 전수 받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농축협 직원들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어, 업무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뿌듯해 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실무능력이 향상되고 체계적 채권관리로 농축협의 건전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필요한 교육을 적기에 실시해 강한 농협을 만들고 튼튼한 상호금융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경제사업과 농업·농촌을 위한 실익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상호금융 대출잔액 약 15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인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국 제의 협동조합 금융을 목표로 관내 92개 농축협의 여신 건전성 강화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사, 가뭄대응 농업용수 절약 홍보활동

영농기가 다가옴에 따라 심각해진 가뭄 극복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가 분주한 발걸음을 내고 있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4월 영농기 섬진강댐 가뭄 대응에 대대적인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는 지역농민 용수절약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각적인 현장 홍보 활동으로 현재 가뭄위기에 처해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직원 70여 명이 섬진강댐 수계인 김제, 정읍, 부안지역에서 용수절약 포스터, 현수막을 내 걸고 지역농민에게 직접 홍보 리플렛을 나눠줬다. 공사는 섬진강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하천·저수지 물가두기, 금강과 부안댐 물 도입 등의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영태 기자



전북직접지사,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대한직접지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지난 13일 지사 3층에서 지사 임·위원들이 모여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청렴도 문화 확산 캠페인은 청렴위(WE)인(인) : 우리는 청렴한 직심자인입니다”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사 내·외부 관계자들이 모여 청렴 다짐 선언을 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청렴 내부민족도 제고 △청렴 문화 활동을 통한 시책의 영향력과 중용성에 대한 체감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대한직접지사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직원, 헌혈 생명나눔 실천

전북지역내 헌혈수급 부족 소식에 롯데백화점(전주점) 전 직원이 두말없이 헌혈에 뛰어 들었다. 강정구 롯데백화점 전주지점장은 지속적인 혈액 보유량 감소 소리를 듣고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전주점) 전 직원들은 지역내 헌혈모임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16일 사랑의 헌혈 장소에 모였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005년 생명나눔 헌혈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7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생명나눔 단체 협약하고 매년 꾸준히 헌혈과 헌혈증 기부에 동참해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관계자는 “전북혈액원 헌혈 버스에서 진행된 헌혈을 통해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홍보하고, 직원들의 헌혈 실천으로 지역내 헌혈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장경민 농협 전북본부장, 손수 만든 사랑의 빵 나눔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16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빵국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 이날 장경민 본부장 박병철 농협노조 전북지역위원장 등 전북본부 직원 15명이 참여해 한손한손 사랑의 빵을 만들기에 동참했다. 이들은 아울러 모든 제빵 과정에 참여해 반죽, 빵모양잡기, 굽기 등으로 단팻빵 240여개를 만들었으며, 같은날 전주 소재 지역이동센터 4곳에 직접 전달했다. 장경민 본부장은 “직원들이 손수 만든 따뜻한 빵의 온기가 지역사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1위은행으로서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사랑의 빵 만들기, 생명나눔 헌혈 봉사활동, 이음식 급식지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임실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협약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회 안전 확보와 편안한 정착을 위해 전주완산소방서가 앞장섰다. 김장수 완산소방서장은 임실군가족센터와 함께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의 안전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다양하게 마련됐으며, 기관들과의 협력중심이 추진될 전망이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장수 완산소방서장, 송상철 임실119안전센터장, 김정숙 임실군가족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다문화가족 대상 소방안전교육, 119안전체합관 견학, 소방안전 체험캠프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임실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 생활안전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임실군 다문화가족 등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인권의식이 함양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